

# “무명시절 시뮬레이션 연기, 다양한 캐릭터 밀거름”

## 스타인터뷰

### 영화 ‘챔피언’ 권 율

“따뜻한 가족 영화 ‘챔피언’ 안에서 불거지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할 수 있어 기뻐요. 단순히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기 욕심이 있는 편인데, 다양한 캐릭터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했고, 후회없이 촬영했죠. (웃음)”

2014년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권율은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굿속말’에서는 엘리트 변호사 강정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한계단씩 자신의 연기 영역을 구축해오고 있다. 반듯하고, 냉정한 도시 남자를 주로 연기한 권율이 이번 ‘챔피언’에서는 알뜰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기 기질이 다분한 떠벌이 스포츠 에이전트 진기로 분해 마동석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영화 ‘챔피언’은 타고난 팔씨름 선수 마크(마동석)가 미국에서 알게 된 진기(권율)의 설득으로 팔씨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마크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인생역전하려는 진기는 영화에서 가장 압제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며 의기양양해지만, 속마음만큼은 따뜻하고 아픔이 있다.

“사실 진기에 대한 전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의 대화를 통해 한때 유복했던 친구가



영화 ‘챔피언’ 스틸컷. /워너브라더스

세가 기울면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돈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처음에는 진기와 마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으니깐요. 하지만,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물에 동화됐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죠. (웃음) 그래서 진기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주자장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동석이 주인공이지만, 극을 끌고 가는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권율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마크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관객에게도 전하는 게 권율의 역할이었다. 동시에 중간중간 코믹함과 진

팔씨름 소재 배우 마동석과 열연 허세 가득·속마음 따뜻한 진기 역

“마동석, 첫 코미디 연기의 버팀목 ‘작품에 스며들수 있는 배우’가 꿈”

기의 폭넓은 감정까지 살리는 게 버거웠을 터. 권율은 감독의 기준점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코미디가 처음인 권율에게 감독과 마동석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그는 “스스로 코미디 연기를 위해서 노력한 건 목소리 톤을 올리고, 말을 빨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라며 “마동석 선배가 코미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여쭙봤다. 진기는 대사량이 상당히 많다. 긴 대사들을 어떻게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 점을 많이 연구했다. 마크가 워낙 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진기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챔피언’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팔씨름을 소재로 했다. 아마추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팔씨름에 관심이 많은 마동석과 달리 권율은 팔씨름이라는 스포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팔씨름을 소재로 한 영화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팔씨름은 금지였다고도 설명했다. 생각보다 부상을 입기 쉬운 운동이라 안전을 위해 선수들의 손을 잡아보는 게 전부였다고.

권율에게 ‘챔피언’은 첫 코미디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흥행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흥행 성적에 관계 없이 이런

캐릭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중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금은제가 노력한 시간의 가치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박수받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해야 할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27세, 늦은 나이에 데뷔한 권율은 알려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권율은 무명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욕심이 더욱 생길 수 있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TV, 영화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연기했을까’ 하면서 머릿 속으로 수도 없이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악역도, 코믹한 역할도 항상 머릿 속으로 그려봤었고,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무명시절을 거치면서 흔들리는 시기도 분명 있었지만, ‘내가 배우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은 없었어요. ‘어떤 연기를 대중에게 보여줬을 때 좋아해줄까’ ‘어떻게 해야 권율만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웃음)”

데뷔 11년차, 권율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부지런한 배우 나아가 작품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배우가 되

는 것이 꿈이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기는 그의 자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배우 권율.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 위성우 감독, 우리은행 지휘봉 4년 더 잡는다

여자프로농구 ‘통합 6연패’ 이끌어 최강팀 유지… 2022년까지 재계약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 /연합뉴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통합 6연패를 이끈 위성우 감독이 4년 더 지휘봉을 잡는다.

우리은행은 8일 “위성우 감독과 오는 2022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약의 세부 내용은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은 “위 감독은 2012년 4월 부임 후 팀을 통합 6연패를 이끌었다”며 “최강팀으로 변모시킨 검증된 지도자로 그동안 우리은행이 구축한 최강 전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향후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 감독은 “그동안 이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은행 특유의 팀 컬러를 더욱 업그레이드 해 여자프로농구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원 코치도 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감독과 4년 더 호흡을 맞춘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박카스배 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 오늘 개막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서 2일간

동아제약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18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9일부터 10일까지 2일 간 제주도 오라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18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 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동아제약과 SBS골프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며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2018년 현재 선수등록을 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참가한다.

경기는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정해진 홀에서 경기 후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천재지변과 부득이하게 경기 일정이 일부 중단되면 최소한 1일 18홀 참가한 선수 전원이 경기를 끝냈을 때 대회가 성립된다.

단체전 초등부와 중등부는 각 부 1개 팀을 2명으로 구성해 매일 2명의 타수를

합산한다. 고등부는 1개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3명 중 적게 친 2명의 타수를 합산해 2일간 경기 후 가장 적은 타수를 가진 팀이 우승하게 된다.

개인전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단체전과 병행해 36홀 경기가 끝난 후 타수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자가 된다.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 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미래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골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동아제약과 SBS골프채널이 2005년부터 14년째 주최하고 있는 대회이다. 매년 국내 골프 꿈나무들이 꼭 참가하고 싶은 대회 중의 하나로, 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오늘의 날씨**

5월 9일

음력 : 3월 24일

수도권 날씨

21~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9 | 해질 / 19:29

연천 7/20

동두천 8/22

가평 7/20

파주 7/21

서울 10/21

양평 8/21

인천 11/18

수원 10/20

용인 10/20

평택 9/21

백령도 9/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승을 거둔 박성현(사진)이 세계랭킹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박인비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평산산(중국)과 렉시 톰프슨(미국)이 2, 3위를 지켰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 팀 승리에 기여했다.
- ▲ 김시우가 1년 전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이 대회 우승을 노린다.
- ▲ 빅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최지만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타율은 0.283에서 0.284로 소폭 올랐고, 팀은 5-3으로 승리했다.
- ▲ 김해림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지영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 ▲ 강경호가 8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UFC 227에서 4연승에 도전한다.
- ▲ 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강원 FC가 중앙 수비수 한용수를 영입했다.